

'보통재 생태축 복원' 막바지 구슬땀

진안군, 금남정맥 생태적 연결 회복 산림 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대

진안군이 추진하는 보통재 생태축 복원사업이 올 상반기 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에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국도 26호선으로 인해 단절된 금남정맥의 생태적 연결을 회복하여 상징성을 되찾고 산림 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며, 이를 통해 백두대간의 민족정기 상징성 회복과 함께 산림 생태계 건강성과 연속성의 유지 및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진안군이 추진하는 보통재 생태축 복원사업이 올 상반기 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사진은 조감도 상부평면도)

특히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와 생태계의 조화를 이루는 생태복원 연결공간을 조성하고 있어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 연결로를 마련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로드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방안을 도입해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복원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산림 생태계 건강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 확산되어 우리나라의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서면마을을 금강변 벚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무주 곳곳 봄날 '벚꽃길' 장관

한풍루·서면마을·설천 뒷작금 벚꽃길 등 상춘객 발길 이어져

무주군 지역내 벚꽃 명소인 한풍루와 서면마을, 설천 뒷작금 벚꽃길에 벚꽃이 예년에 비해 이른 개화가 시작되면서 상춘객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무주 벚꽃은 읍내 시가지 중심도로인 무주읍 주계로와 단천로를 시작으로 한풍루 일대에서 절정을 이루면서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먹거리 장터와 무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들의 거리공연도 예정돼 있어 상춘객들의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옛 소이나루가 있는 서면마을에서 금강 상류를 거슬러 오르는 벚꽃길도 장관을 이룬다.

한풍루가 있는 자남공원은 아름다운 벚나무 고목이 에워싸고 있어 벚꽃이 만개하면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한낮 오후, 한풍루에는 삼삼오오 산책하는 상춘객들이 눈부신 봄날의 여유를 즐기며 벚꽃의 자태에 감탄을 지른다.

무주읍 주민 이부영 씨는 "한풍루에 벚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들과 산책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꽃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무주가 좋다"며 동료들과 사진을 찍으며 짧은 여유를 즐겼다.

무주벚꽃발자취에서 무주읍 대치리 서면마을까지 약 5km에 이르는 남대천 도로변 벚꽃도 꽃망울을 일제히 터뜨렸다. 4월 8일과 9일에는 '서면 소이나루 벚꽃길' 행사를 앞두고 있

다.

마을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먹거리 장터와 무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들의 거리공연도 예정돼 있어 상춘객들의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옛 소이나루가 있는 서면마을에서 금강 상류를 거슬러 오르는 벚꽃길도 장관을 이룬다.

금강변바실길이 지나는 구간으로 잠두마을 옛길과 부남면 상굴안마을 도로변 벚꽃 터널을 보노라면 잠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다.

설천면의 벚꽃 명소인 뒷작금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설천면 뒷작금 벚꽃축제'가 4월 7일부터 9일 까지 열린다. 뒷작금 벚꽃길은 설천면 소재지에서 소천제방교를 건너 라제봉문 앞 이남마을까지 약 1.3km에 이른다.

이외에도 무주구천동 33경 중 제1경인 라제봉문에서 제경 은구암을 지나 월현마을까지 4km 구간의 벚꽃길도 상춘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길은 라제봉문에서 구천동까지는 37번 국도로 정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명품 드라이브 코스다. /무주=전문선 기자

3·1 독립정신 계승·발전 | 4·1 무주만세운동 기념행사

4·1 무주만세운동 제104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일 무주벚꽃발자취 원형광장에서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4·1 무주만세운동 제104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일 무주벚꽃발자취 원형광장에서 열렸다.

4·1 무주만세운동은 1919년 3·1 운동에 대한 소식과 독립선언문이 무주 지역에 전해지면서 무주장날(4월 1일) 일어났던 것으로, 행사는 '자강, 자강, 화합, 평화' 등의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4·1 무주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4월 1일 무주군 기독교연합회(회장 이상덕 목사)가 주관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오광석 부의장을 비롯한 주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독립선언서 낭독',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3·1절 노래 제창'과 '민체 삼장'을 함께 했다.

황인홍 군수는 "4·1 무주만세운동은 3,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맞서 피 흘리는 심정으로 한 것"이라며 "이 지리가 무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41 무주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오광석 부의장을 비롯한 주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독립선언서 낭독',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3·1절 노래 제창'과 '민체 삼장'을 함께 했다.

황인홍 군수는 "4·1 무주만세운동은 3,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맞서 피 흘리는 심정으로 한 것"이라며 "이 지리가 무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41 무주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104년 전 전일봉 선생이 이끌

장수한우 산업 현안 공유 간담회 열려

최훈식 군수, 전국한우협회 장수군지부와 논의

최훈식 장수군수는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전국한우협회 장수군지부 임원진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한우 산업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한우협회는 축산 자원화 방안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적기 수확 대책 사료작물 밭돼지 피해 방지, 우량 유전자 보급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장수군은 장계 가족부노자지원화 시설 활용 개선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원 확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군비 추가 지원, 장수한우 및 장수한우 지방공사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

를 바탕으로 한 우량 유전자 지원방향 설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제안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최훈식 군수는 "내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수 한우산업을 위해 힘쓰고 계신 한우협회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말씀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식 장수군지부장은 "허려운 때 일수록 행정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의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교육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지난달 31일 최복미숙관 다목적 영상실에서 무주군의회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교육을 개최했다.



지방의회연구소 김인철 교수가 강의했다. 군의회 의원 및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을 바탕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로 교육에 성실히 임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는지 심도 있고 꼼꼼하게 살펴 재정건전성 실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오늘 이 지리가 결산검사 제도 이해와 전문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산 농·특산물' 부산역 고향뜨락 매장 진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무주산 농·특산물이 부산에서 선보인다. 무주군은 코레일유통(주) 부산역 '고향뜨락' 매장에서 반딧불 농·특산물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운영하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개장되는 부산역 '고향뜨락'은 무주벚꽃발자취농협이 지역 업체에서 납품받은 꿀, 천마, 도라지청 등 다양한 품목을 전시해 무주군 전문 홍보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각 역사에서 마련되는 홍보·관측전은 지난 2020년 6월, 코레일유통(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군은 이번 개장되는 판매장 외에도 서울 용산역 천안역 등 대도시 주요 철도역에서 판매장을 운영하



며,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와 인지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부산역은 약 1,260만 명의 이용객을 보유하며 전국에서 4위에 달할 만큼 거대한 부산을 대표하는 주 교통수단로 이번 홍보·판매장을 통해 무주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인지도 상승과 농가 소득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올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

28일까지 소 7400·염소 5100두 대상

진안군은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규모는 관내 사육 중인 우재류로 소 310농가 7,400두 염소 96농가 5,100두이며 폐지는 상시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 일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공급하며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하고,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 공수의사 접종이 가능하다. 단,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유예 사유 해소 즉시 자가접종을 하고 그 접종결과를 무진장축협(한우) 또는 전봉농협(염소)에 신고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접종 후 4주 이내에 백신 항체양성을 모니터링 검사가 실시되며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접종 실시 명령 및 4주내 재검사가 실시되는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소·염소 사육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구제역 백신접종을 당부드리며, 우리 군은 빈틈없는 방역관리를 가중될 수 농장 중 집중기후이 개월을 초과한 개체가 사육두수 대비 20%이상인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해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80%) 미만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 관계자는 "소·염소 사육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구제역 백신접종을 당부드리며, 우리 군은 빈틈없는 방역관리를 가중될 수 농장 중 집중기후이 개월을 초과한 개체가 사육두수 대비 20%이상인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해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80%) 미만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취약계층·국가유공자에 난방비 추가 지원

진안군은 4월 3일부터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몸노인과 국가유공자들에게 난방비 지원금을 배부한다.

대상자들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받을 수 있다.

난방비 추가지원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에 근거한 조치다.

지원내용은 2022년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기준 대상자 중 홀몸노인과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며 11만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제공되며 지원 액수는 당초 원액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지급된다.

연료비 지원 선불카드는 진안군 관내 주유소 및 IPC충전소 등에서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조치로 정부 지원에서 빠진 독거노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전라작물직불제 신청 20일까지 연장

장수군은 전라작물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를 4월 2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전라작물직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위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밭쌀을 버 재배를 줄여 안정적인 쌀 수급 불안을 해소,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전라작물직불제 사업은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 쌀 등 전라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ha당 50~48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며, 2023년은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으로 하계조사료가 추가돼 ha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하계조사료는 2022년에 버를 재배하고 2023년에 하계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필지에 한해 지급한다.

직접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형설지공립도서관 4월 독서문화프로그램

무주군민들이 꽃이 만개하는 봄철 4월을 맞아 무주형설지공립도서관이 진행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어 정서함양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무주형설지공립도서관에 따르면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도서관 주간(4월 12~18일)을 맞아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취지다.

4월을 맞아 6일, 13일, 20일 독서문화프로그램, 29일 마주마주 수요예에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4월 12일은 정부가 '도서관의 날'을 새롭게 정하면서 이번 독서문화 프로그램 진행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매일 마지막주 수요예 문화가 있는 날'로 도서관을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하고 아간에는 인기 공예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